THO I OTE GOINGE,

지방발 항공 노선별 시리즈 광고 – 버스 내부



사람들은 늘 여행을 꿈꾼다.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할 때면 더더욱.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보는 창 밖 풍경이 비행기 안에서 보는 풍경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인사이트에서 출발했다.

또한 해외여행을 하면 인천, 김포공항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 제주에어의 다양한 지방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.



해당 지역의 버스에 목적지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듯한 광고를 설치한다. 예를 들어 무안의 경우 방콕행 노선에서 착안해 비행기 창밖으로 방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'왓포 사원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한다.

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노선을 목적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으며 제주에어와 함께라면 그들이 어디에 있는 여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.



SERIES

무안-대낭/오행산





대구-베이징/만리장성



THOU OTLINE, JEJUair

버스좌석 광고



지방발 노선은 지방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선택지이다. 여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해당/주변 지역에 어떤 노선이 취항되었는지 SNS홍보나 뉴스 기사 등을 통해 정보를 바로 얻는다.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찾지 않는 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고 이에 따라 지방발 노선의 존재를 모른 채 먼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.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규 취항 노선 정보가 잘 전달되도록 그들의 일상 속에서 흥미를 끌 수 있는 광고를 해야 한다.



버스 좌석 광고에 여권에 비행기표를 끼워 전달하는 듯한 모습을 싣는다. 이때, 광고를 접한 사람이 비행기표를 꺼내 볼 수 있도록 표를 여권에 실제로 끼워져 있도록 만든다. 비행기표에는 해당 지역의 공항 또는 그 주변 지역 공항에 신규 취항한 노선 정보를 적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 사이트로 연결하는 QR코드도 싣는다. 버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타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정보를 폭넓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. 또한, 여행의 설렘을 떠오르게 하는 비행기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꺼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보가 효과적으로, 폭넓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





